



제5회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변화된 문화지형도와 공공성
_공공예술과 대중문화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PROGRAM BOOK

Session 2

확장된 공공성과 대중문화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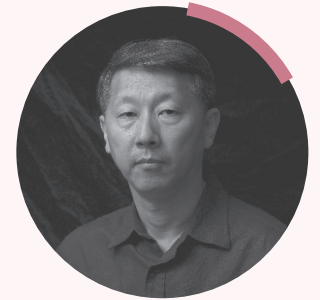
Expanded Publicness and Creative Consumer Culture

Speaker

최범

Choi Bum

•
한국 | 미술·디자인 평론가
Korea | Art · design critic



-
- 現 한국디자인사연구소 소장
 - 전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상임위원
 - 「최범의 서양 디자인사」 등 다수 저서 출간

- Director, Korea Institute of Design History
- Member of Public Art Committe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찾아서: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In Search of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Between Artistry and Popularity.

●
최 범
Choi Bum

예술이나 흥물이나

2017년 ‘서울로 7017’의 개장에 맞춰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슈즈 트리(Shoes Tree)’가 논란에 휩싸였다. 가든 디자이너 황지혜의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서울로 7017’ 위에서 서울역 광장 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구성된 것인데, 3만 켤레의 버려진 신발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즉각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보기 흉하다.” “냄새가 날 것 같다.” 다수 시민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흥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학자 진중권은 “예술이 예뻐야 하나? 흥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옹호했고 미술평론가 반이정도 문화적 소양에는 인내력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대중의 관용을 주문했다. 이 작품에 대해 대중은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지지를 보냈다. 대중은 흥물로, 전문가들은 예술로 본 것이다. 당시 나는 이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제3의 관점을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품에 대해 변호를 좀 하고 싶다. 그것은 이 작품이 어느 평범한 흥물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괴물이라는 것이다. 흥물과 괴물의 차이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메시지의 전달방식과 코드의 구조에 달려 있다. 나는 발신자가 단일 코드를 폭력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흥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각종 기념비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환경조형물들은 흥물에 해당된다. 그것들은 거대한 권력과 고정관념의 산물들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정치적·예술적 상상력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¹⁾

나는 이 작품을 ‘실패한 공공미술이자 성공한 현대미술’이라고 규정했다. 대중의 호감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공미술로서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의 통념을 위반하고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감각을 투척했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현대미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을 흥물이 아닌 괴물이라고 말한 것도 그러한 경계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미술도 현대미술이지만 그것은 미술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대중의 시선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슈즈 트리’는 시민들의 외면 속에서 9일 만에 철거되고 말았다. 원래부터 일시적인 작업으로 계획되었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로서는 뼈아픈 경험을 한 것이다. ‘슈즈 트리’는 그렇게 짧은 생을 마쳤지만 강렬한 기억과 함께 한국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피할 수 없는 물음을 남겼다.

1) https://www.huffingtonpost.kr/bum-choi/story_b_16761418.html

공공미술의 주체는 누구인가

‘슈즈 트리’ 논란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공미술이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미술의 주체에 대한 물음이다. 공공미술은 ‘사적 미술(private art)’과는 달리 다양한 주체들이 개입되고 충돌하는 장이다, 그것은 공공미술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public access) ‘열린 미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공미술과 관련된 주체들은 균일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공공미술과 관련된 주체는 공급자인 관(官), 제작자인 예술가/전문가, 수용자인 대중이다. 문제는 이 세 주체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理解)와 이해(利害)가 다르다는 데 있다.

공공미술에는 공급자인 관 주도의 공공미술이 있을 수 있고, 예술가 중심의 공공미술이 있을 수 있으며, 대중이 원하는 공공미술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치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일치되기는 쉽지 않다. 사실 그동안 공공미술은 주로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경우 공공미술은 도시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기가 쉽다. 가장 나쁜 것은 엘리트 카르텔, 즉 관과 전문가들이 결탁하는 것이다. 이 역시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경우이다. 한편 한국의 공공미술에서 최악의 영역으로 꼽히는 ‘건축물미술작품’의 경우는 대중(건축주)과 전문가의 결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술계와 시민사회의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아성은 여전히 견고하다.

물론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는 일방적인 관주도 공공미술이나 건축물미술작품과는 다른 방식과 경로로 공공미술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으로 알고 있다. ‘서울은 미술관’의 접근방식을 보면 공공성과 대중성을 조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앞서의 지적에서 보듯이, 공공미술이 그 이름과는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나 폐쇄적이고 타락하기 쉬운 장르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슈즈 트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공공미술은 관과 전문가와 대중, 이 3자 사이에 벌어지는

고난도의 게임인 것이다.

공공미술의 공공성,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공공미술은 일단 ‘미술과 공공성의 만남’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이해(理解)와 이해(利害)가 얽혀 있는 공공미술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그것은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 이 역시 ‘슈즈 트리’의 사례가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고 본다. ‘슈즈 트리’에서 충돌한 것은 전문가와 대중, 예술성과 대중성이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전문가들은 공공미술의 예술성을 강조했다. 그에 반해 대중은 대중적 호불호를 내세웠다. 그리하여 전문가의 관점과 대중의 취향이 날카롭게 충돌했다. 결과는 대중성의 승리였다.

그런데 나는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날카롭게 충돌하는 예술성과 대중성, 바로 그 사이야말로 공공미술이 파고들어가야 할 지점이기 때문이다. ‘슈즈 트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끝났다. ‘슈즈 트리’는 사라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로 ‘슈즈 트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지점, 거기에서부터 공공미술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과 공공성의 만남’이라고 할 때의 그 ‘공공성(publicness, Öffentlichkeit)’이란, 원래 서구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나온 가치이다.³⁾ 그것은 ‘시민적 덕성(virtu civile)’에 기반하여 ‘공공선(bonum publicum)’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서구적 전통이 결여되어 있는 한국

2) 최 범 외,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문화관광부, 2006. 22쪽

3)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populus)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Publizität) 공공복리(salus publica)를 추구’하는 속성이다.”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34쪽

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유감스럽게도 그저 허울 좋은 외재적 관념에 가깝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적 공공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미술과 공공성의 만남’인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던져진 근본적인 물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

나는 한국적 현실에서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바로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슈즈 트리’에서 날카롭게 부딪친 바로 그것들 사이에서 말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성과 대중성의 대립도, 그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도 아니다. 설사 전문가들이 손을 들어준 공공미술의 예술성이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반대로 대중의 취향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예술성과 대중성, 둘 중에서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는 공공미술의 공공성을 보장해주는 절대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공성은 그 사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사실 ‘슈즈 트리’에는 공공성이 빠져 있었다. ‘슈즈 트리’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예술성과 대중성이 아무런 매개 없이 별거벗은 채 충돌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공공미술에는 바로 이러한, 도시 문화가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빠져 있다. 이처럼 공공성의 매개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술가적인 전문성과 생활세계의 대중성은 바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 관념적이며 무책임하다.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공성은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차라리 공정(工程))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시 속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이 충돌하고 교섭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공공성의 자궁으로서의 공론장인 것이다. 사실 ‘슈즈 트리’에 공공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슈즈 트리’는 예술성과 대중성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장을 발생

시킴으로써, 사실은 생생한 공공성을 생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처음부터 공공미술 속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공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분출되는 것이다. 공공성은 그렇게 도시 정치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효과이자 경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대립과 충돌과 교섭을 지켜보고 인내하는 힘, 심지어는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역능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공공미술 씬에서 보기 드물게 대립하는 가치들이 충돌하는 공공성 생성의 장이었던 ‘슈즈 트리’의 소란을, 우리가 더 지켜보지 못하고 일찍 막을 내려버리게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공미술의 공공성은 공공미술 바깥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공공미술의 육체 안에서의 갈등과 대립과 상처들을 통해서 조금씩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예술성과 대중성은 대립을 넘어서 미술의 공공성이라는 장 속으로 통합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미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Is it art or an eyesore.

The sculpture "Shoes Tree," which was set up at Seoul Station Plaza in 2017 in time for the opening of "Seoullo 7017," was in controversy. Garden designer Hwang Ji-hae made this sculpture, as a talent donation. The work was designed just like a waterfall pouring down Seoul Station Square from the top of 'Seoullo 7017', consisting of 30,000 pairs of abandoned shoes. The work immediately faced resistance from citizens. "It's ugly." "It might smell." The reaction of many citizens was that it was, in a word, an "eyesore." In response, esthetician Jin Joong-kwon said, "Should art be pretty? Even a hideous object can be art." Art critic Ban Yi-jung also called for public tolerance, saying that patience is required for cultural literacy. While most of the public reacted negatively to the work, experts generally gave positive support. The public saw it as an eyesore and the experts as art. At that time I held a third view, neither of these two perspectives.

"Nevertheless, I'd like to defend this work a little. That is, this work is not an ordinary eyesore. I mean it's a monst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eyesore and the monster depends on the way the message is delivered and the structure of the code, as I mentioned earlier. I think it would be a real eyesore if a sender delivers a single code violently. From this point of view, almost all the environmental sculpture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various monuments, constitute eyesores because they are the products of enormous power and stereotypes that do not allow us any political or artistic imagination."¹⁾

I defined this work as 'failed public art and successful contemporary art.' It can be said that it failed as a public art in that it did not win the public's favor, but it could be a successful contemporary art in that it violated popular conventional ideology and crossed boundaries. The reason why I called this work a monster, not an eyesore, was because I paid attention to such vigilance. Of course, public art is also contemporary art, but it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museum-based ones. That's why public art can't resist the public gaze. The "Shoes Tree" was removed in nine days amid the public's neglect. Although it was originally planned as a

temporary work, it was a painful experience for the Seoul Metropolitan city. "Shoes Tree" ended with such a short life like that, but left an inevitable ques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public art with intense memories.

Who is the subject of public art?

What has been left from the "shoes tree" controversy? That is, whose public art should be? In other words, it is a question of the subject of public art. Unlike "private art," public art is a place where various subjects are involved and collide, because public art is accessible to anyone, "open art." However, this is only a definition out of formality. Indeed, the subjects involved in public art are neither uniform nor equal. The subjects involved in public art are the government, the supplier, the producer, the artist/expert, and the public, the acceptor.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 three main players have different interests and understanding of public art.

There may be public art led by the government, which is a supplier, public art centered on artists, and public art desired by the public.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se to be politically and aesthetically matched. In fact, public art has been mainly led by government. In this case, public art is likely to be used as a tool for urban politics. Worst of all is the elite cartel, or collusion between government and experts. This is also a case that is often observed. Meanwhile, "Architecture Art Works," one of the worst areas of public art in Korea, can be attributed to the collusion between the public (architecture owners) and experts, whose stronghold remains solid despite repeated criticism from the art community and civil society.

Of course, I know that the "Seoul is Museum" project is designed to provide public art in a different way and path from the one-sided government-led works of public art or architectural art works. Looking at the "Seoul is Museum" approach, the intention is to harmonize publicness with popularity but as seen in the previous comments, it is also necessary to fully recognize how, unlike its name, closed and easily corruptible a genre public art is in reality. The "Shoes Tree" has raised this issue fundamentally. Public art is a highly difficult game played among the three parties, government, experts and the public

1) https://www.huffingtonpost.kr/bum-choi/story_b_16761418.html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how to make it.

Public art, first of all, can be defined as "The Meeting of Art and Publicness."²⁾

Then, how can we find publicness in public art, where different understanding and interests of various subjects are intertwined? It must be found between artistry and popularity. I think that the case of the "shoes tree" provides a clue. It was experts and the public, artistry and popularity that clashed in the "Shoes Tree." As already mentioned, experts emphasized the artistry of public art.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has put forth public likes and dislikes. Thus the expert's point of view and public's taste clashed sharply. The result was a triumph of popularity.

However, I think w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in this case is not the outcome, but the very process. This is because the sharp conflict of artistry and popularity is the point where public art must penetrate. Unfortunately, the discussion ended with no further progress, despite the issue being raised in the "Shoes Tree." The "shoes tree" is gone, but it doesn't end with that because the point wher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shoes tree" started is where we have to start discussing public art.

The "publicness (Öffentlichkeit)" when we say "the meeting of art and publicness" is a value originally derived from the republican tradition of the West.³⁾

It aims to realize a 'bonum publicum' based on 'virtu civic'. However, in this Western tradition-deficient Korean society,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regrettably, more of a good external conception. How can we make Korean publicness in this reality? Where can we find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the "meeting of art and publicness"? Isn't this the fundamental question thrown at us?

I said that in Korean reality,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must be found right

between artistry and popularity; the very ones that clashed sharply in the "shoes tree." It's not just a conflict of artistry and popularity, and it's not a question of which is more important. Even if the artistry of public art recognized by experts is accepted by the public, or, on the contrary, even if public taste wins, problems still remain. Neither artistry nor popularity is an absolute value that alone guarantees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Rather, publicness should be seen as in between.

So, in fact, publicness was missing in the "Shoes Tree." The failure of the "Shoes Tree" was right there. As a result, artistry and popularity collided naked, without any medium. Most Korean public art is missing the question: what publicness should be pursued by urban culture. In such a state without the medium of publicness, artistic expertise and the popularity of the everyday life world are bound to collide. However, it is too ideological and irresponsible to just say that publicness and popularity should be harmonized. It doesn't mean anything to say that.

We must change our thinking about publicness. Publicness is not given from the beginning, but is created in a certain process. Where artistry and popularity collide and negotiate in the city, that is the public forum as a womb of publicness. In fact, it is not that there was no publicness in the "Shoes Tree." Rather, the "Shoes Tree" was actually creating a vivid publicness by creating a sharp clash of artistry and popularity.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is not embedded in public art from the beginning but it is only released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Publicness is such, an effect and experience occurring in urban politics and culture. So what we need is the power to watch and endure such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nd negotiations, even the ability to enjoy them.

"Shoes Tree" was the venue for creating publicness, where conflicting values collide, and it was rarely found in Korean Public art. In this regard, it is regrettable that the uproar over the "Shoes Tree" was brought to an end early so that we couldn't watch anymore because the publicness of public art is not from outside of public art, but rather is carved through such conflicts, confrontations and wounds in the body of public art. In this way, artistry and popularity go beyond confrontation and integrate into the field of publicness of art. That's how we ultimately create an "esthetic community."

²⁾ Choi Beom, "Public Art Changes the Cit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age 22, 2006.

³⁾ "Publicness is the attribute of 'free and equal people (populus) pursuing public welfare (salus publica) through open communication procedures (Publizität)." Cho Han-sang, <What is Publicness>, Book World, page 34.